

신문 받아보듯, 아침식단 쓱쓱! 진화하는 식품구독

롯데푸드 '이·달·떡' 구독서비스
3만원 상당제품 월 9900원 이벤트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케어식단'
저당식단 등 3개 프로그램 구성
롯데제과 업계 첫 '월간 과자'
소확행팩·마니아팩 이원화 운영



'이달떡' 구독 서비스. /롯데푸드

비대면·언택트 구매가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구독은 일반적인 소비패턴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식품업계는 구독경제 마케팅이 확실한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개성있는 구독 모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롯데푸드는 공식 온라인몰 롯데푸드몰에서 차별화된 '이·달·떡(이 달엔 뭐 먹지)' 구독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매달 정상이 3만원 상당의 롯데푸드 제품들을 월 9900원 구독가로 받아보는 이벤트다. 매월마다 택배를 통해 그 달의 신제품과 베스트 제품이 담긴 박스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제품들을 구매할 때 보다 약 70% 할인된 가격이다. 롯데푸드몰의 해당 구독 서비스는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단 3개월만 가능한 파격적인 구성을 선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 기업 현대 그린푸드의 '그리팅 케어식단'은 타사의 반찬을 정기 구독해주는 것에 비해 건강 식단을 직접 구성해 제공한다는 점이 특화됐다. 현대 그린푸드 측은 그리팅 케어식단 정기구독 고객이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자, 맞춤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900여 종인 케어푸드 레시피를 연말까지 추가로 300여 종 개발하고 이를 통해 케어식단 프로그램별 메뉴 종류도 현재보다 70% 가량 늘린 9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저당식단' 프로그램은 1주일에 9끼씩 구독중인 고객의 경우, 고객이 원하면 10주 간 매일

다른 메뉴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팅 케어식단은 식사 목적에 맞춰 영양이 설계된 케어푸드 반찬과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당 함량을 낮춘 '저당식단', 샐러드 위주로 구성된 '라이트식단', 3대 영양소(탄수화물·단백질·지방) 중에서 단백질 비중을 높인 '웰니스식단'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정기구독형 서비스 그리팅 케어식단의 8월 주문량이 전달인 7월 대비 25.9% 늘었다고 현대 그린푸드는 앞서 6일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8월 16일 전후로 판매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8월 16일~31일 사이 그리팅 케어식단의 일평균 주문량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비교해 35.7% 증가했다.

한편 롯데제과는 과자 구독 서비스를 확대해 이커머스 사업의 킬러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과자 업계 최초로 지난달 20일 개시

한 '월간 과자' 2차 모집은 6일 만에 조기 종료된 바 있다. 2차 모집에서는 서비스 정원을 선착순 500명으로 1차때보다 200명 늘렸으며 서비스 종류도 한 가지 늘려 소확행팩(9900원), 마니아팩(1만9800원)으로 이원화해 운영했다. 별다른 홍보 없이 입소문이 퍼지며 빠른 시간 내에 모집 정원을 마감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과자 구독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롯데제과는 추후 많은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여러 구독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민정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구독 경제·공유 경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는 동안 젊은 세대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보편화 됐다"면서 "유통가의 트렌드가 단순 이커머스 구매를 넘어서 이커머스를 통한 다양한 구독 형태·정기적인 결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자 업계 최초로 지난달 20일 개시

롯데제과는 추후 많은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여러 구독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민정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구독 경제·공유 경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는 동안 젊은 세대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보편화 됐다"면서 "유통가의 트렌드가 단순 이커머스 구매를 넘어서 이커머스를 통한 다양한 구독 형태·정기적인 결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자 업계 최초로 지난달 20일 개시



현대 상가 또 폐업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현대의 한 상가에 폐업 정리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6일째 100명대... 확산세 잦아들어

중대본, 사회적거리두기 효과 가시화
서울 67명, 경기 29명 등 수도권 98명
사망자 5명 늘어 우려... 누적 34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게 잦아들고 있다. 지난 달 440명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연속 100명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전일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지난 3일 이후 지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발생도 전일에 이어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 서울 지역에서

6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경기 29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만 9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는 11명 줄어들면서 누적 15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국내 발생 확진자가 98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망자는 늘고 있어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

이다. 이날 사망자가 5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사망자는 341명이 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 2일 부터 7일째 지속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무려 17명이 숨졌다. 위중 환자들이 늘었고, 고령 환자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7일 기준 위중·중증 환자만 보면 162명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는 138명으로, 전체 85.2%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아직 추이를 더 봐야 하겠지만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말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에 정은경 내정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한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인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서 왔다.

강도태 인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려대 무역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 의료정책관, 보건 의료정책실장 등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노동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소상공인 2차 코로나대출 한도 확대”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코로나대출)을 한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돼,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175조+알파(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파악해 2차 코로나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재택근무가 확대된 금융권에도 철저한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급·결제, 매매 등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들은 이중, 삼중의 보

완조치와 시스템적 가외성을 확보하여 비상시에도 차질없이 작동돼야 한다”며 “영업연속성계획(BCP)과 비상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과 해킹,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보안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포함 가계 부채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 의 위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등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집계한 민생·금융안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금융지원 실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4조1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379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2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12조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4일까지 총 197만7000건, 194조1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유리 기자 yul15@